

(사)한국석재협회, 산업원료광물 B2B 네트워크 사업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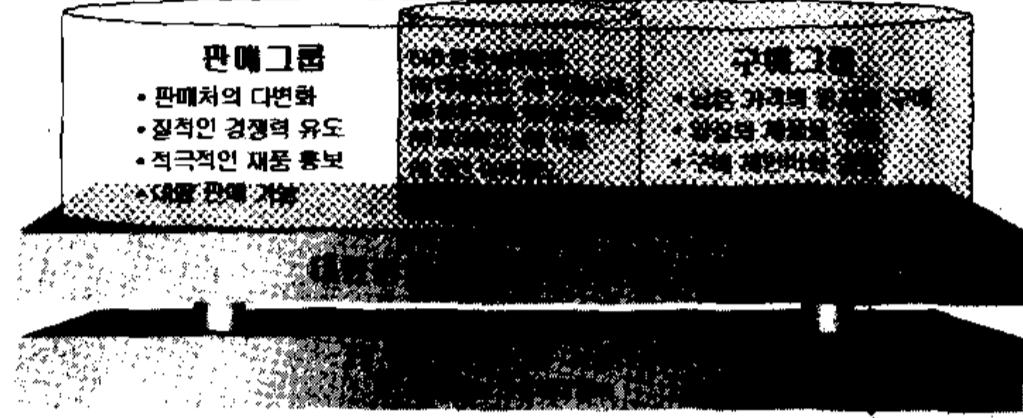
안정적 자원수급 인프라 및 자원정보 네트워크 구축

한국석재협회, 백광소재, 태경산업, 청주석회, 태연석회, 경기광업, 우봉, 성진미네랄즈, 동해화학공업 등 10여개 업체가 산업원료광물 B2B 네트워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 주관으로 B2B 사업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는데, 석회석, 대리석 등 산업원료광물은 전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그 규모도 1조 3천억에 이른다.

또한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및 판매 육성전략인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산업원료광물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특히 이 광물은 부존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순도·고품질 광물의 수입이 많아, 향후 기술 개발에 따른 자급기반 마련 및 수입 대체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중요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B2B 사업은 안정적 자원수급 인프라 및 자원정보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B2B 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은 인터넷, 인터넷이력 등 e-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비즈니스의 특징은 인터넷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구매 효율 증대, 구매 프로세스 단축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구축함으로써 인체 풍부한 컨텐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e-비즈니스는 국내 산업원료광물 업체가 주로 중·소 규모로써, 업체간 제품 소개, 동종 업체와의 기본적인 정보 교환 정도이며 실질적인 공유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광업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해 광업 관련 지원 기관,

협회, 연구소 및 학계 등의 상호 협업체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화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연계 및 기술정보 교류는 국내 가공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유망 수출 산업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의 진행은 분류체계 및 코드 등 업무의 표준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 및 자료의 공유를 통해 문제 발생시 해결의 실

마리를 제공한다는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광업 및 가공분야의 교육이나 세미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를 통해 영세한 업체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석재협회는 광진공과 더불어 이번 산업원료광물 B2B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조성 및 SCM(공급망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감소 효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유입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유입을 허용하고, 일반 중소기업이 부조를 저가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을 도입한 결과,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와 반대로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등 근로조건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

고용허가제는 왜 필요한가

외국 인력의 편입입출·송출비리·사업장 이탈 등 기존 산업연수생 문제점과 노동시장 왜곡, 인권침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근로자와 3D업종 취업기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어 우리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는 증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양당의 대선공약 채택, 노동·인권단체와 입법청원 등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상승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기업에게 좋은 9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불법 체류가 외국 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제는 검증된 외국 인력을 합법적이

고 고용허가제에 의해 필요할 수 있다. 즉,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불법 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둘째,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기업 외에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도 경쟁하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현재 기업의 요구와 상관없이 무기한 외국 인력이 배정되며,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되나, 이제는 가능 수단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명부를 준비한 상태이다. 넷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법 체류, 인권 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용 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된다. 다섯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 모집·선정업무에 직접 처리하고 민간영리 중개업자들의 개인을 배제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송출비리방지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일곱째, 기업이 외국인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 내국인 구인 때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미리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 여덟째, 외국인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므로 노사분규 요인이 줄어들고, 근로계약 1년마다 갱신하는 상황에서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면서 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아홉째, 대안·심가별·용종 등 고용허가제,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은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과연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안·심가별 용종 등 국가조차 제거 및 입신 금지, 강제 파견, 단체행동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대다수 기업이 외국인에게 계약과 불이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원천 배제하는 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는 이미 중소기업의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제16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2월 인사국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외원(여·야의원 33인 공동발의) 입법안이 상정 되었으며, 2003년 2월~3월 간 정부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합의를 거쳐 그 방침을 확정하였다.

국내근로자 3D업종 기피, 고령화 등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3년으로 제한하고,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등 근로조건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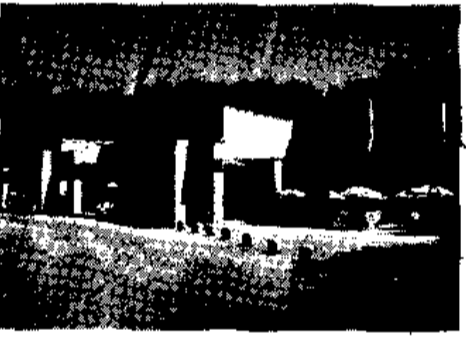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선정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절차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송출국가 정부간 인력수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송출국 정부 등 유망 수요사항을 규정하였다. 송출국가에서 취업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노동부에 송부하면,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정보망에 등재된다. 기업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취업을 알선한다. 노동부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부락인력확보인을 발급하여 외국인 고용허가권을 부여한다. 이에 기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구인신청을 하면 고용정보망에서 적격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기업은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근로자 도입 전문기관에 위임이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할 수 있고,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 고용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관리를 하게 된다. 단순노동 외국 인력에 대한 국내취업을 금지하고 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만을 운영함에 따라 99년 이후 급증한 불법체류자의 수는 '03.2월 국내 외국 인력의 78.4%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 증가를 막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만큼 문제점은 줄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최선책이 되길 바란다.

벽계 승화원 '남골당 부스'로 유통개선

고객행위·시기분양 사라질 듯

서울시립 화장장인 벽계 승화원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벽계읍에 소재한 승화원에 유족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남골당 부스'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유족들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남골당 부스는 수도권 일원에 있는 50여개의 남골당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화장문화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화원에 남골당 부스가 설치되면 남골당 정보에 아무런 유족들이 전화만으로도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신과 맞는 남골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유족들은 남골당의 자료를 통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실제 물건을 볼 수 있어 민원 소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장소에서 남골당 업체들의 정



벽계 승화원에 남골당 부스가 설치되면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그간 민원이 많았던 남골당 관련 각종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남골당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남골당에 관한 정보가 없어 화장장에서 고객행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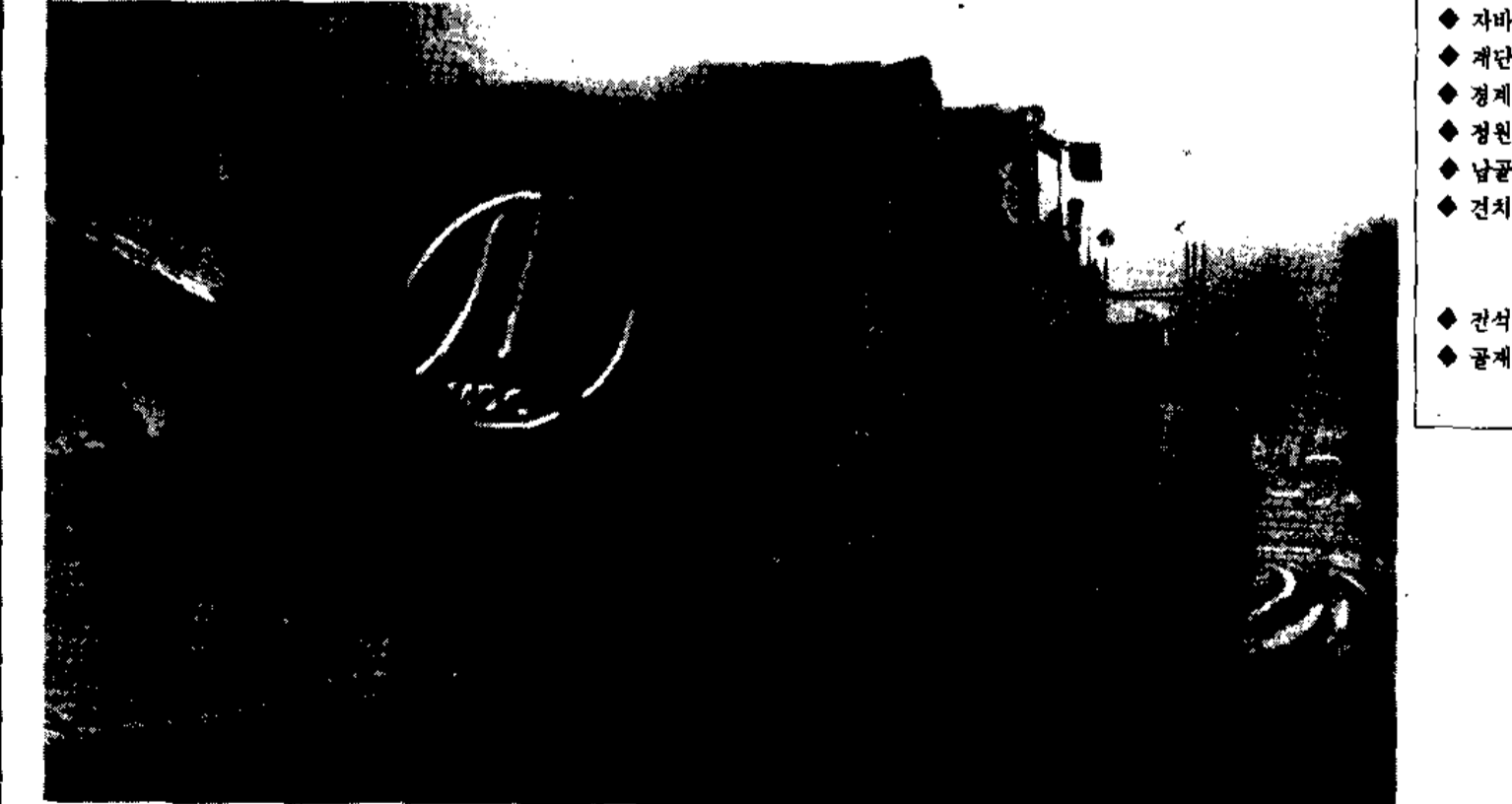
하는 일부 업체 직원들의 말을 듣고 남골당을 잘못 선택해 민원에 많이 발생해 왔었다. 이번에 남골당 부스가 설치되면 향후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간에 제기돼 왔던 '남골당 시기 분양'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골당 업체들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족 맞춤형' 영업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바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자유로 청아울림의 김영복 사장은 "남골당 부스 설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향후 업체들 간의 신뢰가 형성돼 지금과 같은 민원 등이 사라지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장례서비스도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골당 부스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남골당 부스가 설치되면 업체 간의 불신이 일시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상을 담에 걸릴 수 없는 유가족들에게 양한 정보를 제공해 유가족들의 혼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석질 거창모동화강석



거창모동화강석

- ◆ 원석판매 : A급 5,000원 / B급 4,000원
주문석, 경쇄, 큰 덩어리 주문 가능
- ◆ 판매 : 최고품질에 최저가격으로 공급
㎡당 25,000원
(중국석과 품질면, 가격면 경쟁에서 우위)
- ◆ 용두기
- ◆ 두절석
- ◆ 자바라
- ◆ 재단석
- ◆ 정제석(최고 A급 주문생산)
- ◆ 평원 바닥석
- ◆ 남골당 : 최저 단가로 생산 공급
싱크 주문생산
사각주 문생산
- ◆ 견적 공금
- ◆ 결제, 방배들 공금, 최저단가로 사공 가능

모동기공사

◆ 견본원석을 확인하여 구입하므로 안정적인 계층 생산
◆ 석질이 우수하여 가공시 재료파괴율이 높음(85%이상)
◆ 건축주에게는
• 모동석은 오래되어도 현황을 그대로 유지
• 뛰어난 품질과 저렴한 가격
• 건축주 의뢰에 뛰어난고 부자의 가치가 높음

◆ 건축주가 확인하여 석계 선택
◆ 신도봉이 우리명에 우리석계가 적함

모동기공사의 특징

- 균일한 석질, 깨끗한 중립자의 백색화강석
- 알칼리함량이 적어 비식되지 않아 영구보존
- 돌색이 밝다(회색되지 않는다)
- 가공이 편리하여(흡수율 높음-0.25)원가 절감됨(흡수소모가 아주 적음)
- 국내 단일규모의 원석 최대 생산 산업
- 사용자가 시험수행한 결과 최고 우수품질 인정 (2001.1.18 한국건설기계연구원)